



## 양 배움터 하나 되다

교과부, 우리학교 본·분교 통합안 최종 승인



글로벌캠퍼스가 공식적으로 캠퍼스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번 달 2일(금)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와 글로벌캠퍼스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학교는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에 이어 4번째로 통합이 성사됐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6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본격적으로 본·분교 통·폐합에 착수한 후 이번 해 9월까지 교과부에 총 5차례에 걸쳐 본·분교 통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지난 달 15일(월) 우리학교에 제5차 통합안이 부결

된 것을 통보하고 25일(목)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서울배움터 영어학부 개편안과 글로벌캠퍼스의 국제금융학부 운영계획을 담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통합을 확정지었다.

교과부에 제출된 우리학교 본·분교 통합안에 따르면 서울배움터는 순수학문과 어문학을 강화하고 글로벌캠퍼스는 통번역학과 같은 실용학문 위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에 따라 양 배움터에서는 학사제도를 개편했다. 그 내용에 따라 서울배움터의 영어대학 소속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는

영어학부로 개편되며 글로벌캠퍼스의 경상대 소속 △국제경영학과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는 국제금융학부와 경영정보학과로 나뉘게 된다. 또한 글로벌캠퍼스에 있던 자유전공학부는 폐지된다. 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되며 2013학년도에 입학한 학생까지는 기존의 학과명과 학과 과정이 유지된다.

양 배움터 통합을 추진한 박철 총장은 이번 달 6일(화)에 본지와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본·분교 통합은 양 배움터의 경쟁력 확보 등 학교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다시 한 번 이

번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이 성공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학교의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고 우리학교가 향후 자율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3면 총장인터뷰 참조)

학교는 학생들의 본·분교 통합에 대한 의문점과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서울배움터 기획조정처장 명의로 된 메일을 서울배움터 학생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 메일은 Q&A형식의 설명문으로 본·분교 통합과 관련해 △통합 추진 배경 △학교가 얻게 되는 이익 △개편된 학

과 존폐 여부 등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10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학태 서울배움터 기획조정처장은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 여러 입장을 고려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발전의 신기원을 여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메일을 보냈다”고 말하며 “양 배움터 통합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 본·분교 통합, 양 배움터 학생들의 입장은?

이번 달 2일(금) 서울배움터에서는 영어통번역학과가 폐지되고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국제경영학과와 자유전공학부가 폐지되는 등 학제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서울배움터에서는 교과부의 승인 이후 학교의 ‘일방적인 학과구조조정’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기 위해 이번 달 7일(수)에 비상총회를 소집했다. 비상총회는 전체구성원의 1/10 수인 800명이 참여해야하지만 604명이 참여해 무산됐다. 학과구조조정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어대의 최승환(영어·영문 12)군은 “학교 측은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간담회는 교과부에 통합안 제출 이후 이뤄졌다”며 “통합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상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

배움터 총학생회장은 “본·분교 통합과 관련한 학교의 일방적 행정은 부당한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논의과정에 학생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비상총회가 본분교 통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까닭은 학생 여론의 분열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학교 생활정보 포털사이트 ‘홈스라이프’를 통해 자신을 영어대 학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총학생회가 영어대의 갑작스러운 학제개편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비상총회를 통해 영어대 문제 뿐 아니라 총학생회가 처해있는 자치권 문제도 함께 묻어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캠퍼스의 학생들 측에서

도 ‘본분교 통합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진아(경상·국경 10) 경상대 학생회장은 “경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로 정도가 찬성 혹은 부분적 찬성 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40%는 반대 혹은 부분적 반대로 이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캠퍼스 통합 위원회’를 발족해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계선·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 제2건학 선언 14주년



1998년 10월 29일 구 재단법인이 비리 문제로 물러난 뒤, 학교의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학구성원의 이름으로 “한국의외국어대학교 제2건학 선언문”이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도서관 건물 앞에 세워졌다. 이번 해 10월 29일은 선언문이 14주년을 맞이한 날이다.

김계선 기자 86ksholic@hufs.ac.kr

### 지면안내

2 박근혜 대선후보의 우리학교 방문!

3 본·분교 통합, 박철 총장에게 묻다

5 2014 신입생 광역모집 시작

6~7 전국 최초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단, 그 결과는?

12 꿈을 좇는 음악평론가 장일범, 그의 음악같은 이야기



### 빈 의자

## 이 시기, 가장 필요한 것은

▲이번 달은 파업의 달이라고 지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업에 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8일(목) 경기지역 15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사관리원 등 무기 계약직 1000여명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날, 한국노총소속 무주 덕유산 리조트 노동조합은 18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9일(금)에는 급식 조리원, 행정 보조직 등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더군다나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오는 15일(목)에 파업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MBC노조도 재파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파업이 끊이지 않는 이번 달, 왜 하필 지금 각종 파업과 시위가 몰려 있는 것일까. 그들의 요구 안에서 그 해답을 엿볼 수 있었다. 노동자 측과 각 지자체의 말을 종합하면, 각 지자체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 9.3% 인상 △정년차별 해소

△결원 시 신속 채용 △정소용역 민간위탁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부별로 동시에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법률 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파업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선을 앞둔 지금이 법안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요구를 가장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는 시기에 파업이 이때에 몰려있는 현실을 생각해보자. 구체적이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감시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공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은 발로 뛰며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를 느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간 정치적 역사를 살펴봤을 때, 공약에 대한 준

비는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전부라고 느껴질 정도다.

▲매일 대선 후보자들은 △의료와 보건 △군사 및 안보 △교육 △문화와 예술 등 각 분야를 방문하며 필요한 사항을 듣는 것과 연일 계속되는 파업과 시위의 원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힘 쏟는 모습이 보여준다. 때문에 지금 내민 손이 민심을 위해 대선 공약을 세울 때만 잡을 수 있는 손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에 이런 선택을 내린 그들이 슬퍼 보이기까지 한다.

▲대선 전후라는 시기에 상관없이 매일 의견을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파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의 문제 이전의 소통의 부재다.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문나윤 부장

국·부장 고정칼럼



학내 브리핑

사회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양 배움터 졸업시험 시행돼

이번 달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양 배움터에서 제2학기 졸업시험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현재 3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7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이번 달 말까지 △정규 FLEX시험 △졸업시험FLEX △일반시험(학과 재량) △논문심사 등이 치워진다. △제2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의 이수자도 해당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고 유형별 졸업시험에 응시 또는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 관련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학과별 세부 일정은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젠 인터넷으로 FLEX시험 도전하세요!

우리학교 FLEX센터가 기존의 FLEX시험에 iBT를 결합한 iBT-FLEX시험을 개발했다. 이로써 FLEX 응시생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환경에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번 달 14일(수)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iBT-FLEX는 앞으로 주 1회 이상 시행될 예정이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세 언어가 시행된다. 특히 우리학교 재학생에게는 △응시료 할인 △실용외국어 학점 인정 대체 △졸업인증제 적용 등 혜택이 있다. 시험 세부 일정 및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 (http://ibtflex.hufs.ac.kr)에서 참조할 수 있다.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세요!

서울배움터 보건진료소에서 △학부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진은 재학생 건강검진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나뉘어 실시되며 비용은 각각 2만원, 3만원이다. 검진은 이번 달 14일(수)부터 15일(목) 오전 9:30~오후 3:00까지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검진항목은 △신체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등이고 검진결과는 2주 후 보건실에서 개별수령할 수 있다.



본·분교 통합의 타산지석

앞선 본·분교 통합 대학들은 어땠을까?

이번 달 2일(금)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와 글로벌캠퍼스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학교는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에 이어 4번째로 본·분교 통합이 성사된 학교가 됐다. 우리학교 이전의 다른 대학의 본·분교 통합과정은 어떻게?

먼저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1946년 설립됐을 당시 서울캠퍼스에 자연과학계열과 인문계열이 공존했다. 그러나 1979년 성균관대학교가 수원에 캠퍼스 부지를 마련하면서 자연과학계열이 그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그 결과 이공계열 캠퍼스와 인문계열 캠퍼스가 자연스럽게 분리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현재 성균

관대학교의 행정 처리는 총장 1인과 각 캠퍼스를 담당하는 2명의 부총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서울에 일원화 돼있기 때문에 김로연(성균관대 11)양은 "수강신청의 경우 양 배움터가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는 캠퍼스 이원화가 계열을 기준으로 이뤄졌기에 특정 학과가 사라지는 사례는 없었다.

반면 교과부의 본·분교 통합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가장 먼저 인증을 받은 곳은 중앙대학교다. 우리학교의 경우처럼 양 캠퍼스에 유사한 학과가 존재했던 중앙대학교는 학교 재단이 통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단기간에 본·분교 통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홍하늘(중앙대 09)양은 "특정 학과가 통합되거나 폐합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수연(중앙대 11)양은 "본·분교 통합 이후 양캠퍼스 간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안성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이동하는 일부 학교 버스가 1학년 탑승으로 제한되는 등 체감교류는 적다"고 전했다. 한편 통합의 결과 양 캠퍼스는 예체능 계열을 중심으로 한 안성캠퍼스와 이·공계열 및 사회과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서울캠퍼스로 나뉘었다. 통합 이후 중앙대학교는 1명의 총장 아래에 5명의 부총장이 직무를 담당하는

행정체제로 개편됐다. 중앙대학교 이후 2번째로 본·분교 통합을 인증 받은 학교는 경희대학교다. 경희대학교는 1999년부터 본·분교 통합을 준비해 단계적 통합을 이룬 경우다. 1979년 이후에 수원 국제캠퍼스에 자연과학계열이 이전돼 캠퍼스 간 특성화에도 성공했다. 본·분교 통합에 대해 정용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예산이 일원화 돼 통합이 완료된 이후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교비가 동등하게 조정됐으며 차별받던 장학금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는 전공 이수 시 양 캠퍼스에서 교차수강도 가능해졌다. 권수정·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 우리학교 애경홀에서 대학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근혜 대선 후보

박근혜 대선 후보, 우리학교 애경홀서 대학언론인들과 만남 가져

"학생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강당에 들어서자 강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후보에게 쏠리고 카메라 셔터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다. 이번 달 1일(목) 우리학교 국제관 애경홀에서 대학언론인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함께하는 '박근혜 대선 후보 인터뷰'가 열렸다. 이는 지난달 13일(토)에 열린 문재인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 대학언론인이 참여하는 두 번째 대선 후보 인터뷰다. 이날 인터뷰에는 55개 대학에서 온 약 160여명의 대학언론인이 참석했으나 우리학교 일반 학생들의 인터뷰 참관은 박 후보 측의 요청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인터뷰는 사회자와 박 후보 간의 농담이 중간 중간 오고가는 등 밝은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는 대학언론인이 대학생들과 관련된 질문을 묻고 박 후보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상 중인 정책들에 대해 대답하는 문답형식으로 이뤄졌다.

인터뷰에 나온 15가지의 질문에는 △등록금 △학자금 대출 △주거 문제 등 대학생이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과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대책 △국립대 법안화 등 전반적인 문제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근아 아주대신문 편집국장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시킬 구체적 방안에 대해 묻자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소득과 연계해 등록금을 부여한다면 절반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학언론인들은 행사를 마치고 이후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만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정상석 전북대신문 편집국장은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와의 인터뷰를 성사시켰으니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안철수 대선 후보자도 빠른 시일 내에 인터뷰 약속을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 본분교 통합에 대한 궁금증, 총장에게 묻다



학교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본·분교 통폐합 안이 이번 달 2일(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합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통합과 관련된 많은 진술이 엇갈리고 오해는 속 시원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과연 본·분교 통합의 정확한 목적은 무엇이고, 학교가 제시하는 우리학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1년간 통합을 추진했던 박철 총장에게서 직접 답을 얻어 봤다. **편집자주**

**Q 본·분교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적었다는 의견이 많습니**

**A** 우리학교는 앞서 본·분교 통합을 이룬 다른 학교의 사례와 비교하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통합이 결정된 이후 △교수회의 △교무회의 △총학생회장이 참석하는 대학평의회 등의 자리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해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불거졌던 영어대학의 경우 학장과 학생들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간담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우리학교 통합이 추진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A** 본·분교 통합은 궁극적인 목표이기 이전에 우리학교가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단계적인 성격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는 우리학교의 생존과 직접 관계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분교 형태였던 여러 학교가 통합을 이루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분교 통합은 시대적인 추세이자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 본·분교 통합은 우리학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통합된 이후 우리학교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A** 우선 대외적인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언론매체나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양 배움터학생들 사

이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외대인'으로서 통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학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규제로부터 벗어나 상당한 자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각각 중형 대학으로 인식되던 양 배움터가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대형 대학으로 인정받아 지원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앞서 언급된 지원금이 확보된다면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A** 지원금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개선해나가는 데 쓸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입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에 마련 돼 있던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7+1 프로그램', 관심 있는 나라에서 체험하는 'KOTRA 인턴십'부터 해외 어학연수까지 더 많은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금이 쓰일 겁니다.

**Q 통합 이후 서울배움터는 어문학 중심, 글로벌 캠퍼스는 통번역학 및 지역학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이렇듯 양 배움터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예정인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A** 이번 본·분교 통합 결과 나타나는 양 배움터의 특성은 2008년 글로벌캠퍼스에 통번역대학을 설치해 서울배움터와의 차별화를 꾀한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글로벌캠퍼스에서 통번역 등 실용학문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여 유치에 성공했던

것이 기반이 됐습니다.

**Q 서울배움터에서 영어대학의 명칭과 교육과정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영어대학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년 대략 200여명의 신입생이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로 각기 모집됐는데, 2014년부터 영어학부라는 하나의 단위에 신입생 200명이 모집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의 교과과정을 유지해 신입생들이 3개 학과의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할 겁니다. 동시에 국내외 교수의 수를 증원해 우리학교의 최고 대학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Q 2014학년도부터 통합이 학교 커리큘럼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면 현재 이중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나요?**

**A** 물론 학생들은 2014년에 변경되는 학과와 학부로 이중전공을 신청할 수 있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을 허가 받았다고 해서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Q 통합 이후 학교 행정이 어떻게 변화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양 배움터가 하나의 학교로 통합됐으니 복수전공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통해 서울배움터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반면, 통합 이후에는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이 서울배움터 수업을 들으려면 서울배움터로 다시 입학하거나 편입해야 합니다. 사이버 강좌의 개수가 많아지는 등 작은 단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이중전공 등 기본적인 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Q 이미 통합을 이룬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우리학교만의 운영상 특징이 있습니까?**

**A**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가 통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역시 우리학교만의 특징을 살려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학교는 총 45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외국어가 특성화 된 대학입니다. 동시에 △경영 △경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같은 교육과정이 마련 돼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현재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중전공 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이 외국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희망하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학생들을 위한 융·복합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글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사진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OPEN MYSTORY!**

이야기 한다는 것 이야기 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기에  
이제 삼성이 생각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

[ 삼성 임직원과 영상성 열정운영진 여러분들입니다 ]



# 미리 체험하는 미래과학

## 제6회 이공계학술제 성황리 개최



▲ 공모전을 관람하러 온 학생들이 ERRORS&COMPILER팀이 개발한 회의 어플을 직접 체험해 보고있다.

우리학교 이공계 학생들의 날이 돌아왔다. 이번 달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공학관 로비에 제6회 이공계 학술제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매년 이공계 학생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전시하는 학술제다.

공과대학 학생회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제의 주제는 아이티 피에스타(IT FIESTA)와 생활과학공모전이었다. 생활과학공모전에는 △Futorial △Nanophysics △Physics of legend △Power of think △CPL 등 6팀이 IT FIESTA에는 △2NE2 △Advice △SA Academy △PnP 등 5팀이 공모해 총 11팀이 아이디어를 전시했다.

이날 학술제에는 형광물질을 체내 세포에 적용시켜 쉽게 눈에 띄게 도와주는 연구를 한 CPL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게 지하수 여과 공법을 브리핑한 WWTT팀 등 많은 팀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참여 학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태블릿PC 전용 어플을 개발한 ERRORS&COMPILER팀의 박재현(공과·컴공 05)군은 “현재 많은 회의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인터넷 환경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작한 어플은 태블릿 자체를 공유기로 변환해 어디서든 실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팀이 공학관 로비에 부스를 설치해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

게 실험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참가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며져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공강 시간을 이용해 학술제를 방문한 장혜주(자연·화학 09)양은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고 우리학교 이공계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번 학술제를 총괄한 박단비(공과·디지털정보 08)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이번 학술제를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해줘서 고맙다”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 철학자 10인의 눈으로 폭력을 바라보다

### 일반대학원 추계학술강좌 열려



▲ 라깡, 여성에 대해 말한다: 정신분석학과 폭력'의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강좌에서 이택광 경희대 교수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에 대해 토론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달 13일(화)까지 추계학술강좌를 통해 ‘니체의 권력과 폭력’, ‘사르트르와 지라르의 폭력론 비교’ 등의 주제로 총 여섯 강좌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26일(금) ‘라깡, 여성에 대해 말한다: 정신분석학과 폭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라깡의 이론과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영화 ‘색, 계’를 통해 폭력의 의미를 조망했다. 강좌에 참석한 정성조(일반대학원 중국지역학 06)군은 “대학원 총학생회가 이런 구성의 강좌를 기획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좋았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원 추계학술강좌는 이번 달 29일(목)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6시부터 우리학교 대학원 건물에서 진행된다. 앞으로의 강좌는 후원표 우리학교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진태원 고려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장소 및 일정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www.gshufs.com)를 통해 알 수 있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폭력에 대한 철학자 열 명의 시각이 열 개의 강좌에서 제각기 펼쳐진다.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달 25일(목)부터 ‘10인의 철학자로 본 폭력’이라는 주제로 2012년 추계학술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추계학술강좌는 △니체 △라깡 △마르크스 △아렌트 등 10인 철학자의 시각을 통해 폭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옥은실 일반대학원 부총학생회장은 “이번 추계학술강좌는 우리 자신이 폭력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 새로운 글로벌캠퍼스 학식메뉴 ‘치킨 그라탕’

### 제2회 생협 요리경연대회 열려

이번 달 6일(화) 글로벌 캠퍼스 어문학관 학생식당에서 제2회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요리경연대회가 열렸다. 생협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이 대회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학기에 처음 시행됐다. 우승팀에게는 학생식당 메뉴에 자신의 요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학생식당 메뉴로 적합한 닭고기 요리’라 명확히 정해져 지난 학기에 비해 대회진행이 수월했다는 평이 있었다.

대회에 참가한 8팀은 제공된 국내산 닭고기와 소금, 달걀 등의 기본 요리재료로 제한시간 40분 내에 요리를 완성해야 했다. 참가자 김사랑(어문·아프리카 12)양은 “닭고기를 튀긴 요리를 만들었는데 다른 팀들은 대체로 밥을 이용한 것 같다”며 “참신함보다는 실용성에 비중을 둘 걸 그랬다”고 아쉬워했다. 심사에는 △



▲ 우승자 정소윤 양이 자신이 직접 만든 ‘치킨 그라탕’을 가리키며 기쁜 미소를 짓고 있다.


이경미 영양사 △이명우 조리실장 등 총 5명이 참가했다. 심사기준은 △주제 △맛 △위생 △영양이었고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책정됐다. 20분간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회의 참가자들과 관중들은 경연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1등의 영예는 ‘치킨 그라탕’을 만든 정소윤(통번역·아랍어 11)양에

게 돌아갔다. “닭가슴살에 토마토소스를 더해 맛을 냈다”며 “조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1등을 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레몬치킨조림’을 만든 권혁민(공과·전자 06)군은 뛰어난 요리솜씨로 관중의 눈길을 끌었지만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진성 생협 사무국장은 “학생식당메뉴에 적합한 간편한 조리과정이 중요한 심사기준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1등에게 30만원 △2등은 15만원 △장려상을 수상한 학생에게 5만원 권 신세계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1등을 수상한 정소윤 양의 ‘치킨 그라탕’은 논의를 거쳐 어문학관 학생식당에 메뉴화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채학기 생협 학생위원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해줘서 고맙고 매해 재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 DAEIIYUN


Made the Women's Fashion History For 35 years











주식회사 대현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38-11 대현블루타워  
www.daehyun.co.kr



# 쓰레기, 너는 어디로?

## 서울배움터 쓰레기통 실태 보고서

본지에서는 이번 해 6월 951호 2면에서 「버리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어려운 분리수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배움터 쓰레기통 분리수거 실태를 제시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서울배움터 쓰레기통의 분리수거 항목이 분리수거에 적합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서울배움터 쓰레기통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 서울배움터 쓰레기통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더불어 서울배움터 교정(校庭) 내 쓰레기통 분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편집자주**

### ◆버리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어려운 분리수거

서울배움터 거의 모든 쓰레기통의 분리수거 항목은 두 개로 나뉘어 있다. '일반폐지류'와 '캔·병류'가 그것이다. 취업 준비 때문에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양진권(법·법 06)군은 "공부하다 초콜릿을 까먹고 도서관 쓰레기통에 은박지 껍데기를 버리려 하는데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몰라 그냥 캔·병류에 버린다"고 말하며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항목이 불충분해 분리수거에 곤란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평소 과방 청소를 도맡아 하기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자주 버린다는 이재평(자전·자전 12)군은 "분리수거 항목 중 '일반폐지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쓰레기통 항목이 불분명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비단 인터뷰에 응한 두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달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서울배움터 학생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의 학생이 분리수거에 곤란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곤란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에는 '분리수거 항목의 불충분함'(67%)에 '일반폐지류의 뜻 모름'(29%)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4%)를 선택한 15명의 학생 중 7명의 대답은 "몰라"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치우는 사람도 어렵다. 현재 시설 관리직원들은 두 항목으로 나뉜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다시 한데 모아 재분류하고 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다시 하려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힘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국제학사 시설관리직원 김경순씨의 말이다.

### ◆쓰레기는 있지만 쓰레기통은 없는 교정

또한 위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정 내 쓰레기통 현황의 문제에 대해 '쓰레기통 수 부족'을 꼽은 학생들이 76%로 가장 많았다. 김사립(동양어·몽골어 11)양은 "등교할 때 정문에서 광고물을 많이 받는데 중간에 버릴 곳이 없어 수업 듣는 건물까지 들고 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배움터의 건물 밖

교정에는 7군데에 쓰레기통이 있다. 이는 서울배움터(82,291㎡)와 비교적 면적이 비슷한 세종대(111,676㎡)의 교정 내 쓰레기통 개수 50여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다. 이처럼 서울배움터 교정에 쓰레기통 수가 적은 탓인지 노천극장과 나무계단처럼 학생들이 모여 쉬는 곳에는 담배꽂이를 비롯한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 ◆스티커 이용해 일반폐지류 대신 일반쓰레기로

윤익식 시설관리팀장은 951호에서 "한 건물의 쓰레기통을 바꾸는 데에도 수 백 만원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쓰레기통을 뒤집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시 만난 그는 그때와 생각이 같으며 분리수거 항목 수가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항목을 늘리려면 쓰레기통 크기를 확충해야 하는데 이려면 쓰레기통이 차지하게 되는 면적이 너무 커진다"고 고개를 저었다.



▲국제학사 4층 쓰레기통 일반폐지류 항목 안에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이 한 데 버려져 있다.

서울배움터 밖 길가의 쓰레기통은 서울배움터 대부분의 쓰레기통처럼 항목이 두 개다. 이 쓰레기통의 경우 '일반쓰레기(Wastes)'와 '재활용품(Recycle)'로 나뉘어 있어 비교적 분리수거가 용이하다. 이에 비해 서울배움터 쓰레기통에 표시된 '일반폐지류'라는 단어는 우유팩과 우유팩이 아닌 종이를 구별하기 위한 말로써, 잘 알려진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어렵게 한다. 이준호(서양어·스페인어 12)군에게 일반폐지류의 의미를 설명하자 "그런 뜻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처럼 모호하게 다가오는 '일반폐지류'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라는 항목이 분리수거에 있어서 훨씬 포괄적이고 기초적이다.

쓰레기통 교체가 예산 상 어렵다면 기존 분리수거 항목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수정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팀장

은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는 "외국인도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 새로운 스티커에 영어를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교정 내 쓰레기통 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상관없으나, 외부인이 가져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쓰레기통을 치울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현재 교정의 7군데 쓰레기통에 대해서도 "교정 모든 곳이 금연구역이지만 학생들이 담배꽂이를 너무 버려 청소 직원들이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미관상 좋지 않고 외부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이라 말했다. 따라서 쓰레기통 분리수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나 교정에 쓰레기통이 늘어날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재윤 기자 86healing@hufs.ac.kr

## 2014년부터 신입생 광역모집 시작

우리학교의 신입생 모집방법이 2014년부터 기존의 학과모집에서 광역모집으로 변경된다. 세부 전공별로 신입생을 받는 기존의 방식에서 대학단위로 묶어 입학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러한 변경은 대외적으로 우리학교 입시결과를 상승시키고 학사운영의 변화를 통한 내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학과모집에서 광역모집으로 변경되는 단위는 서울배움터의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를 제외한 사회과학대학과 글로벌캠퍼스의 인문대학이다. 우리학교 입학관리팀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시부터 60%의 수시입학생은 전공예약제로 입학하고 40%의 정시입학생은 1학년 2학기에 전공을 결정하게 된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도 50%의 전공

예약 수시입학과 1학년 2학기에 전공선택을 하는 50%의 정시입학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2014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은 1학년 1학기에 각 대학별로 개설되는 공통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위정섭(서양어·이탈리아어 10) 서양어대 학생회장은 "광역모집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재학생, 신입생 모두에게 발전적인 결과가 되어야 한다"며 "세부사항이 모두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의문점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광역모집이 확정된 △동양어대학 △사회대학 △인문대학 역시 광역모집 후 대학 및 학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 우리학교의 60년 역사를 돌아보는 첫 걸음

### 제1회 세계민속박물관·역사관 학술회의 성황리 열려

이번 달 6일(화) 오후 2:30부터 오후 8:00까지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콤플렉스 지하 2층 국제회의실에서 우리학교의 역사를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기억과 기록을 통해 본 한국외국어대학교 설립과 초기 발전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김해룡 부총장 △권순환 총동문회장 △노명환 우리학교 역사관장 △윤석명 우리학교 명예교수 △송승환 PMC 프로덕션 대표 이사 외에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우리학교의 설립과 초기 발전사'를 내용으로 노명환 우리학교 역사관장 외 4명이 발표를 했다. 발표는 1950년대 초 세계의 흐름 및 글로벌 인재 양성기관으로 설립된 우리학교의 창립과정과 이후 발전과정, 학창시절에 대한 회고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대학사와 기록관리'를 주제로 외대 역사관의 운영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특히 2부와 3부 사이에는 역사관소개 및 외대 연극회 기획전시 개막식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3부는 '연극회 동아리



▲ 노명환 역사관장이 1950년대 시대상황을 설명하며 우리학교의 설립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활동에 대한 회고와 한국의대의 역사'를 주제로 우리학교 연극 중앙동아리의 많은 동문들이 방문해 화기애애한 가운데 송승환 동문의 회고와 연극회 역사 동영상시청이 진행됐다.

행사의 끝으로 김해룡 부총장은 "우리학교의 초기 역사에 대한 회고가 한국외대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역사관이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세계적 역량을 기록하는 글로벌 역사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 iBT-FLEX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FLEX가 새로워집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실용외국어학점 인정 대체 및 졸업인증제 적용!  
· 한국외국어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학 시험 완벽 대비!

**FLEX 시험의 현대화!**  
▶ iBT-FLEX시행으로 컴퓨터 환경에서 시험 실시

**주 1회 이상 시험 시행!**  
▶ 응시언어 : 영어·중국어·일본어

**신속한 시험 결과 발표!**  
▶ 시험일 이후 1주일 이내 성적 결과 발표, 성적표 발급

**듣기/읽기, 말하기/쓰기의 균형있는 평가 가능!**  
▶ 듣기/읽기, 말하기/쓰기를 통합적으로 평가

**합리적인 응시료 가격!**  
▶ 듣기/읽기, 말하기/쓰기 통합형 96,000원(외대재학생 할인 적용가 67,000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 가능!**  
▶ iBT 형태 시험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가능

**2012년 시험 시행 일정**

회차	접수기간	시험일	언어	시험시간	성적발표일(예정)	시행언어	비고
1회차	11월 05일(월) ~ 11월 09일(금)	11월 14일(수)	영어	09:00~12:00	11월 21일(수)	 영어	1회차 응시료무료
			중국어	14:00~17:00			
			일본어	18:30~21:30			
2회차	11월 12일(월) ~ 11월 16일(금)	11월 24일(토)	영어	09:00~12:00	11월 30일(금)	 중국어	
			중국어	14:00~17:00			
			일본어	18:30~21:30			
3회차	11월 19일(월) ~ 11월 23일(금)	11월 28일(수)	영어	09:00~12:00	12월 05일(수)	 일본어	
			중국어	14:00~17:00			
			일본어	18:30~21:30			

※ 1회차 시험 무료 응시 기회 부여!  
 ※ 상기 시험일정 및 성적발표 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시험 시행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LEX센터**  
FLEX CENTER

T. 02-2173-2532 | F. 02-2173-2533 | E-Mail flex@hufs.ac.kr | Web http://ibtflex.hufs.ac.kr



<서울배움터>

# 전국 최초 총학생회 공약

## ◆ 'HUFs in YOU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단' 출범

지난 9월 26일(수)부터 지난 달 2일(화)까지 진행된 'HUFs in YOU 총학생회 공약이행 점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54%가 '공약이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본지는 공약의 실천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따져보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입각해 'HUFs in YOU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단'을 모집했다. 평가단은 현 총학생회 임원을 제외한 일반학생 및 단대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달 9일(화)부터 17일(수)까지 총 12명의 단원을 모집했으나, 중도사퇴로 인해 최종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달 19일(금)부터 이번 달 7일(수)까지 진행된 공약이행 평가에는 △김광환(서양어·네덜란드어 11)군 △김봉기(경영·경영 06)군 △김의준(상경·경제 11)군 △전건호(사회·정외 10)군 △정리나(동양어·베트남어 11)양 △정환수(경영·경영 12)군 △한동주(영어·영어 09)양 △한중현(법·법 08)군 △이상현(일본·일본 05) 일본어대 학생회장 △조봉현(사범·영교 09) 사범대 학생회장이 참여했다. 한동주 평가단원은 "현재 총학생회 선거에서 학생들은 투표만 할 수 있을 뿐 공약이행에 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전국 대학 최초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 ◆ 공약이행 평가, 어떻게 진행됐을까?

평가단은 먼저 지난 달 19일(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에게 기초교육을 받았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두 차례에 걸쳐 HUFs in YOU 평가단과 새판짜기 평가단에 매니페스토 및 공약이행 평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이후 평가단은 △전체회의 △전용카페 △SNS 등을 통해 자치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우선 평가단원들은 총학생회 측에서 제공한 공약집 및 자체평가표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의 틀을 마련했다.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총학생회 측에서 산정한 26개의 공약을 세분화해 총 59개로 재분류했다. 세부공약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공약이행도를 산정하는 기준을 확립했다.

확정된 공약목록과 이행도기준을 토대로 평가단은 정상형(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과 약 두 시간 동안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평가단은 이를 통해 각 공약별 이행상태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한 후 평가기준 설정을 완료했다. 평가단은 총학생회장에게 본격적인 평가를 위한 공약별 자료 및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당면한 여러 학내현안 및 단식투쟁 등으로 인해 평가단 활동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평가단은 자료와 소명을 받고 별도의 사실관계 파악이나 설문조사 등을 한 후 공약이행도를 평가하기로 한 기존의 계획을 철회했다.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총학생회장의 설명을 바

탕으로 대략적인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예정된 활동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해, 일부 평가단원들은 자발적으로 활동기간을 늘려 공약이행 평가를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중간보고서에 따른 각 세부공약별 이행도 평가를 제시한다. 정리나 평가단원은 "총학생회 측의 구두설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다"며 "처음으로 진행된 일이라 그런지 △총학생회 △평가단 △학보사 간 상호협력력이 잘 안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을 잘 마무리해서 첫 평가단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 평가단 자발적으로 활동기간 늘려

예정된 계획으로는 이미 최종보고서가 작성돼 평가단의 임기가 완료됐을 것이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의 자료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평가일

정에 차질을 빚었다. 김광환 평가단원은 "자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중간보고서에는 단순히 외적인 평가만 이뤄져 이행도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곧 총학생회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총학생회의 입장이나 소명 등 자세한 정황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평가에 대해 정상형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에서 그동안 당면한 현안들에 집중하느라 공약들을 지키는데 세세히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초심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약 2주간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는 △외대학보 홈페이지 △외대학보 페이스북 △이메일 등을 통해 재학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 공약이행도 기준

-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돼 구체적, 객관적 사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 정상추진 : 구체적인 개별 공약 사업 시행 계획을 살펴보고, 공약평가 단계에서는 구체적 성과나 그 결과가 없거나 적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돼 총학생회 임기 내 혹은 공약평가 후 상당한 시간 내에 그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완료)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
- 일부추진 : 사업 시행 계획이 있으며, 객관적인 시행절차(준비절차 포함)에 착수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정상추진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업
- 보류 : 사업 시행 계획이 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았거나, 계획에 따라 시행 도중 그 진행이 명백하게 멈춘 사업
- 폐기 : 사업 시행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가지고 시행 도중 그 진행이 명백하게 취소 또는 포기된 사업

## ▼ 지면 상의 제약으로 일부 생략합니다.

공약 번호	분류	공약 사업명	공약 이행도
1		외대학생발전추진위원회와 함께, 2011년 결산안 분석(반값등록금 관련)	보류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속칭 반값등록금 법안) 관련 여론 조성	보류
3	진로박람회 관련 공약	경력개발센터 신하 사회진출지원실 신설	폐기
4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진로상담전문가와외의 개별상담	폐기
5		진로박람회에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	폐기
6		외국어 특성을 살린 직업 소개	폐기
7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진로설정 및 상담	폐기
8		청년유니온과 함께, 표준이력서 제정하고, 기업의 사용 강제	폐기
9		더 많은 국가들로 해외봉사 활동 추진	보류
10		희망멘토 강연을 하고, 멘토 선정에 있어 학우들의 신청을 반영	폐기
11	기숙사 관련 공약	현재 기숙사 입사 기준 조정	보류
12		제2기숙사 건립에 대한 약속 받기	폐기
13		동대문구의 빈집을 찾아 고쳐 기숙사로 제공(속칭 동대문구 해피하우스)	폐기
14	본분교통폐합 문제 해결 관련 공약	당선 후 이하의 세 가지 절차를 거쳐 문제 해결 추진	일부추진
15		노천극장 리모델링 및 지하에 자치공간 마련	보류
16	학생자치공간 24시간 개방 공약	24시간 개방 및 학생체 체크인 장비 설치	보류
17	지하캠퍼스 무료화 관련 공약	지하 복합시설 및 국제 회의실 전면 무료화 / 학생들과 상의	폐기
18		지하복합시설 대여 학생쿼터제 도입 요구	폐기
19		지하캠퍼스와 사이버외대 건물에 대형 강의실 설치	폐기
20	회칙 신설 및 개정 공약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	보류
21		안전발의제 신설	보류
22		정책투표제 신설: 온라인 투표	보류
23		학우소환제 도입	보류
24		정책공모전	보류
25		일반학생이 참여하여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행사 개최	완료
26		총학생회의 자치회비를 과 재정으로 이전	보류



▲ 지난 달 19일(금) 우리학교에서 이광재 사무총장이 공약이행 평가 관련교육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공약이행 평가 교육에 앞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평가단원들 모두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

공약 번호	분류	공약 사업명	공약 이행도
27	아주 특별한 강의	아주 특별한 강의 기획단 공개 모집	폐기
28		기획, 섭외, 진행을 학생들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갈 것	폐기
29		이 수업으로 교양 P/F 인정	폐기
30		문화비 지원	완료
31	학생 문화사업 지원	연극팀 섭외 / 보이는 라디오 섭외	폐기
32		축제 섭외인물 학생들이 '온라인 투표'로 결정	일부추진
33		학생들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면 중운위 심사 후 예산 지원	폐기
34	모든 과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기획	외대 챔피언스 리그: 외대 전체가 진행하는 체육대회(2학기)	폐기
35		전체일꾼수련회 개편	폐기
36		외대인 공동구매	폐기
37		학기말 베품시장 개최	폐기
38		전공 또는 교양서적 공동구매	폐기
39		외대서림의 외대학생 마일리지 제도와의 별도의 할인	폐기
40	시설문제 및 냉난방 문제 관련 공약	여학생 화장실 앞 CCTV 설치 확대 및 사설경비업체 범위 확대	보류
41		강의실 문에 도어 클로저 설치	보류
42		Wi-Fi Zone 확대 및 교내 무선인터넷망 출력 상황	보류
43		계단미끄럼방지대 확대 설치	보류
44		학생회관 24시간 냉난방	보류
45		사회과학관 온수	보류
46	이중전공 및 기타 학사 관련 공약	이중전공 변경횟수 확대	보류
47		전공 및 이중전공 이수학점 하향조정	보류
48		학점 이월제도 확대운영: 2학기에 남은 학점을 익년 1학기로 이월시키는 것 추진	보류
49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강화 장학금 확대/지원	보류
50		유학신청 대학의 지역에 대한 주거정보 제공 요청	보류
51		유학생들 간의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는 연람망 요청	보류
52		1전공과 이중전공 비율 10학점정도 낮추기	보류
53		총선 투표 참여 캠페인 진행	완료
54		대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 신청	정상추진

사진: 이은결 기자



# 이행 평가단, 그 결과는?

〈글로벌캠퍼스〉

실천됐을까? 공약은 학생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으로부터 이행여부를 확인받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본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연계해 전국 대검했다. 공약이행 평가는 서울배움터와 글로벌캠퍼스 각각 별개로 진행됐으며, 본 기사에 평가단이 제작한 보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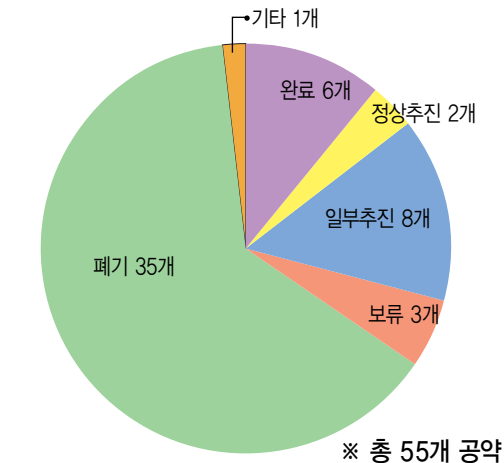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단은 일반 학생 3명, 단과대 학생회장(이하 단대장) 4명으로 총 7명으로 최종 구성됐다. 일반학생 중에서는 △김대평(통번역·영어 07)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주명탁(통번역·독일어 12)이, 단대장 중에서는 △북금희(동유럽·루마니아어 10) 동유럽대 학생회장 △신재구(인문·철학 10) 인문대 학생회장 △안두환(이공자전 12) 이공계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이진아(경상·국제경영 10) 경상대 학생회장이 참여했다. 평가단은 지난 달 19일(금)부터 이번 달 6일(화)까지 약 3주간 활동했으며 활동 기간 동안 △한 번의 매니페스토 교육 △세 번의 회의 △두 번의 소명"을 거쳤다.

## ◆ 글로벌캠퍼스 재학생 98.44% "공약이행 점검 필요"

지난 9월 26일(수)부터 지난 달 2일(화)까지 글로벌캠퍼스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학생회 공약이행 점검에 관련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57명 중 98.44%가 총학생회의 공약이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52.76%가 '운영 실태 공개를 통한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공약이행 점검 방법은 '학생들로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해 실시'가 53.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평가단원 구성 방식은 응답자 중 51.92%가 '일반학생 및 단대장을 대상으로 각각 일정비율씩 지원을 받아 구성'이라고 답했다.

## ◆ 총학생회의 자체평가표 없는 공약 평가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달 9일(화)부터 13일(토)까지 '새판짜기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단'을 모집했다. 모집 대상은 현 총학생회 인원을 제외한 글로벌캠퍼스 학부 재학생으로, 지난 달 9일(화)부터 학생들의 이메일로 지원서가 발송됐다. 그러나 이현성(통번역·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평가단 발족은 외대학보사의 일



방적인 통보'라며 평가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강유나(영어·영어 11) 외대학보사 편집장이 △이현성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 △최국식(동유럽·노어 06) 글로벌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이상태(통번역·중국어 05) 통번역대 학생회장을 만나 평가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결과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거쳐 10명의 모든 단대장이 교대로 평가단 회의와 활동에 참석한다는 조건 하에 평가단 활동을 받아들였다. 중운위의 회의가 끝난 후 지난 달 17일(수)부터 18일(목)까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단원 2차 모집을 실시했다.

평가단원 모집이 끝난 후 지난 달 19일(금) 서울 배움터 인문관 202호에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매니페스토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오후 4시 30분과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매니페스토 교육 참여가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참한 지원자와 단대장은 평가단에서 제외됐다.

공약이행 평가는 총학생회의 자체평가표 작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본지는 10월 7일(수)부터 이현성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에게 자체평가표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체평가표 수령이 예정된 10월 21일(일)까지 이를 받지 못해 전체적인 일정에 차

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굳이 자체평가표로 공약이행 평가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달 23일(화) 자체평가표 수령을 포기하고 선거 책자와 리플렛(leaflet)을 바탕으로 공약이행도 평가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이현성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에게 선거 공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장 대신 '앞으로 공약이행 평가단 관련 업무는 최국식 글로벌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이 담당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본지는 △노란색 3면짜리 양면 리플렛 △자연대·공대만을 위한 공약 리플렛 △16쪽짜리 선거책자 총 3종류의 선거 공보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공약이행도 평가표를 작성했으며 형평성을 위해 평가단을 비워두고 공약만 나열했다. 따라서 '총학생회 공약이행도 자체평가표'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공약이행도 평가표'라는 말을 사용했다.

## ◆ 글로벌캠퍼스 첫 공약이행 평가단, 어땠나요?

평가단은 지난 달 24일(수)부터 31일(수)까지 1차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55개의 공약을 크게 △기숙사 △학내 △대외로 분류했으며, 그 중 학내 공약을 △복지 △장학 △학사 △기타로 세분화했다. 첫 번째 평가단 회의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단대장 4명이 교대로 3명씩 참여했다. 그러나 짧은 평가 기간 및 인원 부족으로 인해 '4명의 단대장도 일반학생처럼 모든 회의에 항상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일반학생 3명과 단대장 4

명이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따라서 두 번째 회의부터 모든 단대장이 참여했다. 1차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1일(목)부터 2일(금)까지 총학생회의 1차 소명이 진행됐으며, 1차 소명을 바탕으로 평가단의 2차 평가가 진행됐다. 2차 평가 진행 중 평가단이 '총학생회의 1차 소명 중 공문이나 회의록 등 공식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어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번 달 6일(화)에 2차 소명을 진행했으며 평가단은 총학생회의 2차 소명을 받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본지에는 지면상의 이유로 △평가단이 각 공약에 대해 판단을 내린 근거가 제외된 공약이행도 평가표가 올라온다. 최종보고서 전문은 추후 모든 학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글로벌캠퍼스의 '첫'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단에 대해 최국식 글로벌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은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며 "아직 완료되지 못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평가단원은 "활동 기간이 충분했다면 총학생회와 직접 면담하며 공약을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경보 기자 86kimseoul0923@hufs.ac.kr

## 각주

1)소명 평가 결과를 받은 총학생회가 불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 자료를 제시해 까닭이나 이유를 밝히는 절차

## 공약이행도 기준

-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
- 정상추진 : 분기별 이행 목표를 달성하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일부추진 : 추진 중이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 보류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 폐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 기타 : 위 항목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사용
  - 이행도의 구분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름.
  - 이행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약에 대한 실천 노력, 실행 정도에 대해서만 평가함
  - 폐기의 기준은 시행하지 않음과 더불어 주변여건에 따라 시행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이 되므로 실천하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실천되지 못한 경우도 폐기로 처리함

공약 번호	구분	공약 사업명	공약 이행도
1	장학	등록금 55만원 인하	일부추진
2	장학	통번역대학 등록금 410만원 → 340만원	폐기
3	기숙사	기숙사비 22만원 인하	폐기
4	기숙사	식권 자율 구매화	보류
5	대외	자취방 보증금 저금리 대출	폐기
6	대외	하숙비 지원	폐기
7	복지	Living 장학	폐기
8	복지	총학생회 카카오톡 민원 접수센터 신설	폐기
9	복지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완료
10	기숙사	기숙사 24시간 개방	일부추진
11	복지	빵차 배차시간의 재조정	일부추진
12	기숙사	기숙사 모든 동에 컴퓨터와 복사기 설치	폐기
13	기숙사	기숙사 방마다 냉장고 비치	완료
14	기숙사	기숙사 신입생 우선선발제 폐지	폐기
15	복지	단과대 열람실에 좌석 발급 시스템 도입	폐기
16	복지	스쿨버스 일부 노선 폐지에 대한 강경 대응	기타
17	복지	정지역 ↔ 학교 스킨버스 신설	보류
18	복지	모든 여량에 족욕기 구비	폐기
19	복지	예비군을 위한 군복, 전투화 무료대여사업	완료
20	복지	앱 개발	폐기
21	복지	학생증 사용범위 확대	폐기
22	대외	재휴할인점 모현, 서현, 서울로 확대	정상추진
23	복지	화장실 리모델링(좌변기 설치 + 인경관 리모델링)	보류
24	복지	ATM기 추가 설치	폐기
25	복지	중앙도서관 4층 열람실에 천장형 에어컨 설치	폐기
26	복지	어문관 앞 계단 설치	완료
27	복지	자연대 앞 계단 설치	폐기
28	복지	자연대의 부족한 책상, 의자 해결	폐기

공약 번호	구분	공약 사업명	공약 이행도
29	복지	무선인터넷 접속 범위 학교 앞으로 확대	폐기
30	학사	각 단과대학별 특정 대학원 연계 과정 수업 개설	폐기
31	복지	참가비 무료 해외봉사단 추진	일부추진
32	기숙사	기숙사 쪽과 도서관까지 CCTV 설치	일부추진
33	복지	모현 폴리스 지원자 장학금 제도 도입	일부추진
34	대외	모현 파출소와 원버튼 경보알림시스템 연계	일부추진
35	장학	토익 장학금 신설	폐기
36	학사	본·분교 통합	완료
37	학사	복수전공 제도변경 철회 및 소송 추진	폐기
38	학사	학점 포기제도	폐기
39	학사	학점 이월제 → 계절학기 무료수강의 가능성	폐기
40	기타	총장 중간평가 실시	폐기
41	학사	강의평가 공개운동 및 경품행사	폐기
42	기타	스폰비를 포함한 학생회비 예결산 공개	정상추진
43	복지	'당신도 이제 기획자' 프로젝트	일부추진
44	장학	이공계 차등 등록금 책정제 완화	폐기
45	복지	자연대 멀티플러자 신설	완료
46	복지	공대 멀티플러자 신설	폐기
47	학사	자연대·공대 학생이면 본관, 인문경상관, 어문관 수업 '10분 지각면제'	폐기
48	복지	자연대 언덕길 도로 포장 공사	폐기
49	기타	실험실습비 전체 내역 공개 요구	폐기
50	복지	자연대 열람실 신설	폐기
51	복지	자연대·공대 여량 리모델링 및 여량지킴이 장학제도	폐기
52	학사	자연대·공대 7+1 파견	폐기
53	복지	자연계열, 공학계열만을 위한 기업 취업설명회 유치	폐기
54	복지	자연계열, 공학계열만을 위한 월 1회 해외 연수설명회 + 해외 연수 상담원 배치 요구	폐기
55	장학	외대만의 자연대·공대 공모전 개최를 통한 장학금 지급	폐기



# earTHeMe

## 대학으路(로) - 세계의 대입시험

“선배님을 응원하기 위해 밤새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전국 곳곳의 시험장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수험생들에게 나눠준다. 학부모는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사람들이 각종 SNS를 통해 “수험생 파이팅”을 외친다. 수험생들은 많은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시험장으로 들어간다. 이번 달 8일(목)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이 날, 듣기 방송이 나오는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됐고 수험생의 교통편의를 위해 출근시간이 미뤄지는 등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렇다면 외국의 대학입시시험은 어떨까? 우리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찾아가 물어봤다. **편집자주**

### 세계 브리핑

#### 오바마,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재선 성공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텃밭과 주요 경합주에서 △온건파 △여성 △소수 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며 이번 달 6일(화)에 미드웨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환희에 찬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들은 시카고에 위치한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환호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헌신 덕분에 그동안 추구해 왔던 변화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더불어 국가가 지속적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오늘밤 이 선거에서 미국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여정이 길고 힘들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결심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퇴보되지 않기 위해 싸웠고,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미국의 최고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환호에 답했다. 그는 미국 내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담론이 과장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그의 재선운동 중심 주제였던 ‘기회의 평등’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방글라데시 난민들 태운 배 침몰, 십여 명 실종

이번 달 7일(수) 말레이시아로 밀입국 하려는 방글라데시 난민들을 적정 승선인원보다 많이 태운 배가 전복돼 십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 배에는 미얀마에서 탈출한 다수의 로힝야족 무슬림 난민들도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승선 인원수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으나 침몰한 배에 대략 100여 명의 인원이 타고 있었으며 최소 23명 이상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곳은 지난해 미얀마 서부지방에서 탄압을 피해 탈출하던 로힝야족 난민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했던 곳과 동일한 해역이다.



▲ 말레이시아로 향하다 전복 됐던 배가 구조되고 있다. 당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탈출하던 난민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아르헨티나, 투표연령 16세로 하향조정

지난 달 31일(수) 아르헨티나에서 투표 참여 가능 나이를 16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르헨티나 하원의 대변인은 반수 이상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전주에는 상원 의원의 과반수가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투표 참여 나이를 기존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운동은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중간선거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많은 비판자들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집권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당(FPV)’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 투표 제한연령 조정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 참여 중인 어린 투표권자들의 모습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 이탈리아 Enrico 교환학생

#### 이탈리아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 있나요?

한국의 수능이 일 년에 한번, 하루 온 종일 시험을 보는 것과 달리 이탈리아는 졸업시험과 대입시험이 따로 있어요. 먼저 이탈리아 고등학생은 졸업시험을 치러야해요. 이탈리아 고등학교는 5학년까지 있습니다. 이 중 3년 동안 한국과 비슷한 커리큘럼의 교과과정을 받고 2년 동안 대학에서 배울 과정을 예측하는 차원으로 교육을 받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ESAME DI MATURITA”라고 합니다. 시험 1단계에서 △수학 △번역 △교양 등 과목별 시험을 보고 2단계에서 이탈리아 교육부가 내준 주제로 에세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명의 교사 앞에서 인터뷰 형식의 구술시험을 치릅니다.

#### 그렇다면 대학을 들어갈 때의 시험은 어떻게?

이탈리아의 일반대학에 진학할 때는 시험이 따로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약학 △공학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가려면 따로 TEST D'INGRESSO UNIVERSITARIO라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시험은 수능만큼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 분야에 특화된 학생이라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 멕시코 Benito Benedetto Perez Mendoza 교환학생

#### 멕시코에는 대입시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6월과 11월 두 번의 시험이 있어요. 대신 두 번의 시험 중 선택해 응시하면 됩니다. 때문에 한번의 시험에서 낙방한다 해도 1번의 기회가 더 남은 셈이죠. 보통 6월의 시험에 11월 시험 보다 더 많은 학생이 응시하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11월의 시험을 택하는 편이 더 성공적인 진학이 가능해요.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기록부성적 우선선발같이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루지 않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됐어요.

#### 멕시코 대입시험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언어 △수리 △외국어 등 각 영역별로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을 응시하는 한국과 달리 멕시코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미 자신의 전공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시험을 봅니다. 때문에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선호하는 전공은 무엇인가요?

멕시코에는 약대가 인기가 있어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길 원합니다. 약대에 이어 선호하는 분야는 법대입니다. 멕시코 학생들도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 한국만큼 치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 프랑스 Clement Daubiqney 교환학생

#### 프랑스의 대입시험은 어떤 식으로 치러지나요?

프랑스에는 국립대(University)와 사립대(Private school)가 있어요. 보통 국립대에 갈 경우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칩니다.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적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일종의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격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립대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 바칼로레아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죠?

바칼로레아는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일반 △전문 △기술 영역이 있는데 국립대에 지원할 때 선택한 전공에 의해 바칼로레아 시험이 배정되요. 사립대에 입학하려면 바칼로레아 이외 대학에서 제시한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 홈스토리 Hufstory 1화 2화 3화 최종화 권수정 기자

한국어


#### <만남의 시작>

얼마 뒤, 그는 나에게 정식으로 만나자는 고백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다.

우리는 다른 보통의 연인들처럼 수업도 같이 듣고 공부도 같이하고 때로는 한 없이 좋다가도 가끔은 토라져 싸우기도 한다.

우연히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홈스토리의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 <Growing into the relationship>


A while later, he asked me out, and we became a couple.

Just like other couples, we took courses together, and studied together.

We went crazy for each other though we often quarrelled over trifles.

We met by chance, grew into lovers by our choice.

And we will remain as a couple by fate.




스페인어

#### <El comienzo de la relación>

Poco después, él declaró oficialmente su amor hacia mí, así nos hicimos novios.

Como otros novios, tenemos la misma clase, estudiamos juntos, pero aun así, a veces nos amamos mucho, otras veces nos peleamos enfadados.

Nuestra relación, empezada por casualidad, se sigue manteniendo a nombre de 'novios'.





<학술 인터뷰>

# 세균 먹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 자연과학대학 명희준 교수의 바이러스 이야기



사진 신민지 기자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이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 것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명희준 교수가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감기약뿐만 아니라 치킨, 삼겹살, 통조림 등에서 항생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양계장과 양돈장을 예로 들어보자. 이런 곳은 대부분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대량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때문에 한 번 병이 발생하면 다른 개체에 순식간에 전염되어 축사가 황폐해질 정도이다. 따라서 항생제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변이(變異) 박테리아가 생기게 된다. 명희준 교수는 “문제는 그 변이 박테리아가 축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비쳤다. 이런 실정을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물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축사에 있는 동물들의 세균감염이 우려된다’는 수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아직도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항생제를 대체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세균을 제어하는 용도로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박테리오파지’란,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세균을 뜻하는 ‘박테리오’와 ‘막다’를 뜻하는 ‘페이지’가 합쳐져 ‘세균을 잡아먹는 생물체’라는 뜻이다. “즉 동물과 식물 등에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달리 박테리아(세균)에 침입해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이죠” 명희준 교수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며 “이 바이러스를 이용하면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이미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인 변이 박테리아에도 적용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균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박테리오파지의 강점을 전했다.

이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 세균을 제어하려는 연구는 1900년대 초반에도 있었다. 하지만 세균을 더 쉽게 제어할 수 있는 ‘항생제’가 발견됐고 193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때 폐기된 계류의 항생제가 많이 쓰이면서 박테리오파지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2000년대 항생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나타나자 다시 세균을 제어하는 용도로의 박테리오파지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됐다.

박테리오파지는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치료 △사육 동물의 사료 첨가 항생제 대체 △분자

생물학 연구의 대상 등 새로운 분야에의 응용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유용한 생물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다양성 확보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우리나라는 각종 연구 소재를 은행이라는 사업단을 통해 확보하고 있고 총 36개의 연구소재은행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가 2010년 우리학교 자연과학대학 안에 설립된 ‘박테리오파지 은행’이다. “우리는 치료효과가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종을 수집하고 있고 현재 이 은행은 600여종의 박테리오파지를 보유하고 있어요”라며 은행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명희준 교수는 “연구자들로부터 기탁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원하는 연구자에게 분양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테리오파지는 치료에 쓰일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salmonella) △설사병을 일으키는 이콜라이(e.coli) △피부 발진을 유발하는 슈도모나스(pseudomonas)같은 박테리아에도 적용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서방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는 박테리오파지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치료약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전임상 테스트와 더불어 3상에 걸친 임상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명희준 교수는 “현재 박테리오파지는 세계적으로 임상 2상까지 가 있고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상 3상을 통과해 치료에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인간은 박테리오파지와 오랜 시간을 공존해왔다. 이렇게 인간의 진화과정을 통해 아무 해가 없다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 명희준 교수는 “수백가지 종이 존재하는 박테리오파지의 몇 가지 종을 적절히 잘 섞으면 내성이 일어나지 않게 잘 제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며 박테리오파지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학교 자연과학대학은 박테리오파지에 관해 두 가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박테리오파지 다양성 은행 구축’과 ‘박테리오파지 유래 단백질을 이용한 위생세균 제어법 개발(GRRC)’이 그 과제들이다. 명희준 교수는 “12월부터 경상대, 수의대의 공동 연구가 계획 중에 있으며,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치료를 목표로 양계장에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 <명희준 교수의 약력 및 주요 논문>

Department of Microbiology,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 USA, 박사

2009-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원 겸임연구원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과 교수

- 논문 : • Complete genome of Staphylococcus aureus phage SA11., <J. Virol.> Vol.86., No.18., 2012.09
- Complete genome of Pseudomonas aeruginosa phage PA26., <J. Virol.> Vol.86., No.18., 2012.09
- Hepatitis C Virus Replication-Specific Inhibition of MicroRNA Activity with Self-Cleavable Allosteric Ribozyme, <Nucleic Acid Ther.> Vol.22., No.1., 2012.02., pp.17-29
- The Old exonuclease of bacteriophage P2., <J. Bacteriol.> Vol.177., No.3., 1995.02., pp.497-501 외 SCI등재지에 교신 및 제1저자로 논문 다수 발표

# “휴대전화 몇대가 모이면, 팝콘을 튀길 수 있다?”

## 공과대학 박영철 교수의 전력증폭기 세계 속으로



사진 박준서 기자

△휴대전화 △태블릿PC △GPS △인공위성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모두 전력증폭기가 쓰인다는 것이다. 전력증폭장치란 공기 저항에 의해 작아진 전파를 기기 송신 시 증폭기를 통해 크게 키워서 전송시키는 장치이다.

우리학교 전자공학과 박영철 교수는 “전력증폭장치의 원리는 확성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확성기의 경우, 음성에너지를 마이크로 받아 전기 에너지를 더하고, 스피커를 통해 증폭시킨 후 다시 음성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선전력증폭기는 들어오는 전기에너지를 받아 확성기처럼 전기에너지를 추가해 에너지를 키운다. 이후 증폭된 에너지는 안테나로 전달된다. 박 교수는 “요즘 전력증폭장치는 자동차의 엔진이나 타이어와 같이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매우 흔하다”며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Wi-Fi)나 블루투스도 같은 원리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선통신기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99년 마르코니에 의해 시작돼, 100여년 후 드디어 전력증폭기술이 생겨났다. 그때부터 2차 대전까지는 전력증폭기술이 진공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반도체가 생겨난 후 전자공학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증폭기 또한 크게 진화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주파수의 크기만을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한 박영철 교수는 “무선기술이 현재 실생활에 쓰이는 방향은 신호를 멀리 보내는 것과 에너지를 보내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말했다. 신호를 멀리 보내는 것의 예로는 △휴대전화 △TV방송 △인공위성 등이 있고, 에너지를 보내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전자레인지가 있다.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있는 용기를 넣고 작동시키면 전자파의 출력을 높이기 시작하여 물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 결과 물분자는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분자 운동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박영철 교수는 “무선기기 속 전력증폭기술은 휴대전화 뿐 아니라 멀리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도 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리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우주에 전파를 보내는 것이나, 휴대전화의 기본 원리나 과정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인공위성에 전파를 보낼 때는 휴대전화보다 더 크게 증폭시켜야 한다. 이 때 증폭을 크게 증대시키려면 전력증폭기와 더불어 안테나를

활용한다. 박 교수는 안테나의 방식을 서치라이트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같은 W(와트)의 전구를 단 순히 들고만 있을 때는 주변을 밝혀주는 용도에 그치지만, 서치라이트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 빛이 보다 멀리 갈 수 있게 한다. 그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안테나는 증폭기에서 나온 증폭된 에너지를 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역할”이라 설명했다. 즉, 인공위성은 전력증폭기와 안테나 두 가지를 활용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박영철 교수는 재밌는 예시가 있다며, 몇 년 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Pop corn with cell phones’이라는 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 영상의 내용은 휴대전화를 몇 개 모아놓고 중심에 팝콘을 놓은 다음, 그 휴대전화들에 전화를 걸면 얼마 후 팝콘이 튀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박영철 교수는 “그 영상은 모두 조작이고 거짓”이라 일러줬다. 이어 박 교수는 “사실 팝콘을 튀기려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몇 분을 돌려야 하는데, 전자레진은 적어도 2kW의 전력을 내지만, 휴대전화는 아무리 많아도 최대 1W”라며, “휴대전화가 10대라도 10W이고, 휴대전화로는 절대 2kW까지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2000대를 모으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교수는 “사실 2000대가 있어도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는 통신이 유지되는 한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는데, 1W까지 쓰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사실 휴대전화가 1W를 쓰는 경우도 통신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경우라며 기지국에서 굉장히 멀리 있을 때가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는 같은 수준의 전력을 쉬지 않고 쓰는 전자레인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1W를 쓰지 못한다.

박영철 교수는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해 3-4년 뒤 즈음에는 무선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게 되거나 더 먼 미래에는 우주공간에서 태양광에너지를 수집해 무선전력을 통해 지구로 전송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며 전력증폭기술의 활용전망을 밝혔다. 우주에서 수집하는 태양광에너지는 지구에서 태양열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 무한한 고효율 에너지의 활용이 예상된다. 이렇듯 무선전력기술은 우주공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도와 미래 에너지기술을 기대하게 한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 <박영철 교수의 약력 및 주요 논문>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논문 : • 다중 톤 신호의 통계적 특성 확보를 통한 광대역 신호 증폭기의 인접 채널 간섭 분석,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제 22권, 12호, 2011.12., 1172-1175쪽

- Expansion of class-J power amplifiers into inverse mode operation, <IEICE Electronics Express> Vol.8, No.18., 2011.09., 1479-1485
- Architecture and Analysis of Sub-Nyquist Rate Sampling for Behavioral ELECTRONICS Modeling of Wideband Power Amplifiers, <IEICE Electronics Express> Vol.E93-C, No.10., pp.1544-1547
- Class-F Technique as Applied to Active Frequency Multiplier Designs,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Vol.57., Issue 12., pp.3212-3218 외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논문 발표



로그아웃

이은결 기자

### 공약(空約)? 공약(公約)!



‘공약(公約)’이란 흔히 유권자를 향한 입후보자의 공적인 약속을 뜻한다. 그렇기에 당선된 후에 이를 실천하는 것도, 약속한 사람으로부터 실천여부를 확인받는 과정도 중요하다.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 공약은 않겠다는 선언인 ‘매니페스토(manifesto)’가 바로 그런 약속이고 과정이다.

본지는 공약의 실천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따져보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입각해 양 배움터에서 각각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단’을 모집했다. ‘내 손으로 뽑은 총학생회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아 늘 마음에 걸렸다’, ‘유명무실한 공약을 개선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는 등 다양하고 진솔한 지원동기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 서울배움터는 10명, 글로벌캠퍼스는 7명의 평가단원들로 구성돼 각 배움터의 총학생회인 HUFS in YOU와 새관짜기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다. 전국 대학 최초로 일반학생들에 의해 총학생회 공약 이행 평가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주간경향에서는 매니페스토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학으로 우리학교를 꼽았다.

하지만 첫 시도인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공약이행 평가 기간이 중간고사와 겹쳐 일정을 빼듯하게 진행해야 했고, 특히 양 배움터 평가단 모두 총학생회와의 소통과 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 공약이행 평가를 기획하는 초기에는 양 배움터 총학생회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평가를 진행하면서 상호협력에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단신투쟁이 평가단 일정과 겹치면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정상적으로 평가단의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며,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특별한 사유없이 평가단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자 역시 평가단에 좀 더 나은 기반을 마련해주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어려운 제반사항에도 서울배움터 평가단은 자발적으로 활동기간을 늘려 평가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다해 활동한 것이다.

또한 평가단이 첫 걸음을 내딛는 데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도움이 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가단은 물론 본지가 매니페스토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활동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다방면에서 밑바탕이 돼줬다. 대학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건전한 선거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대가없이 지원을 해준 것이다. 여러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가단이 활동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도움 덕분이었다.

지지에 힘입어 앞으로도 공약이행 평가를 이어나가, 우리학교에 매니페스토가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현 총학생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공약이행 평가가 다음 입후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나아가 더 많은 대학들이 총학생회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적용해 헛된 공약(空約)이 아닌 진정한 공약(公約)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믿는다.

지난호를 말하다 | 우혜림(서양어·프랑스어 10)

### 학생의 관심으로 이뤄진 학보가 되길

양 배움터의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정기총회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무산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낀 감정은 놀라움보다는 씁쓸함이었다. 정기총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학생들에 의해서만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의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학생회의 구성원으로 학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면 학교의 실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는 정기총회의 성사여부에 따라 학생들을 무시위하기도 무시하기도 한다”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기총회는 학교에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관심이 악플보다 무섭다는 말도 있지 않나. 학내 주점 문제, 본·분교 통합 문제 등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학교와 소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기다.

만평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학생들의 참여 부족으로 무산된 정기총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휴대전화 채팅방을 묘사하며 학생들의 무관심을 잘 꼬집어냈다. 총학생회에서 아무리 외쳐도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시정지 코너에서도 학생회 구성원들의, 정기총회 성사를 위한 힘찬 노력을 사진을 통해 잘 보여줬다.

학교의 주점 설치 반대 선언 관련 문제를 다룬 특집기사에서는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정리한 것은 좋았으나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찬반 의견을 표로 정리하거나, 학내 구성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 전임교원 관련 특집기사 또한 학생들이 잘 알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다뤘다는 것에서 좋게 평가할 만하다. 문제점의 원인이 되는 대학 평가 기준, 그에 따른 우리 학교의 대응 방안을 설명한 것도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더 많은 학생들과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정기총회와 마찬가지로 학보도 학생들의 관심이 없다면 그것의 존재 의미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 지금도 좋지만 학내 신문인만큼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진 학보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호를 말하다 | 유지혜(통번역·중국어 12)

### 학보를 통해 본 변화하는 외대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만 같은데 벌써 1학년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모교인 외대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다. 변화한 모습 중 가장 기쁜 소식은 외대학보 1면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캠퍼스에 신본관 건축설립이 확정된 것이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부족한 편의시설과 체육관, 세미나실 등의 부재가 내게 많은 아쉬움을 줬다. 이 아쉬움은 친구들의 다니는 타 대학교를 방문할 때 더 커졌었다. 웅장한 △컨퍼런스 홀 △세미나실 △전자열람 공간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학교에도 저런 시설들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많다. 이제 신본관 설립이 확정됐고 신본관에 다양한 학습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니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학생들의 공부 의지도 한층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학교가 더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로 평가돼 위상 또한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아쉬운 소식은 학교 내에 주점을 불허한다는 학교의 방침이다. 물론 대학 캠퍼스 내에 음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자제력을 잃을 만큼 술을 마셔 사망하는 학생들도 역시나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올바른 사고를 하며 적당히 음주문화를 즐긴다. 그런데 축제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에도 주점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주점을 설치할 경우 그 학생들이 속한 단과대와 학과에 배정된 장학금을 깎겠다고 한 학교의 방침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학교 내에서 술 마시는 것이 내가 꿈꾸던 대학교의 로망은 아니었지만 축제 기간에조차 교내에서 음주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앞으로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가 개선돼 사건, 사고 등이 줄어들어 축제기간 내에는 교내 음주가 허용되도록 학교 방침이 조정되기를 기대해본다.

외대학보를 통해 볼 수 있는 나의 모교는 △신본관 설립 △교내 주점 불허 △본분교 통합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겠지만, 그 때마다 학교와 학생간의 충분하고 올바른 소통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일시 정지

### 텀블러를 통한 따뜻한 환경사랑



한 학생이 학교 내에 있는 카페에서 종이컵이 아닌 자신의 텀블러로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고 있다. 카페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커피를 건네는 카페 직원 역시 평소 쓰는 종이컵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내는 경우가 드문지 커피를 건네는 모습이 어색해 보인다. 하지만 종이컵 대신 텀블러로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학생의 표정만큼은 환하다.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 한국 최고의 Global Bank!

## KEB 외환은행

- ▶ 5년 연속 「한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수상 (피어낸스 아시아지 선정, 2012.8)
- ▶ 5년 연속 「한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수상 (코퍼레이트 트레저리지 선정, 2012.9)
- ▶ 「한국내 최우수 은행상」 수상 (글로벌 피어낸스지 선정, 2012.10)





## 비둘기 칠판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010-9186-1569

### 서울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박도형(영어·영어통번역 12)

도형아. 신문지면으로 인사를 하려니 어색하고 무뎡  
뚝한 부산 남자라 편지를 쓰는 게 손에 익지 못해도, 내  
마음을 조금은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었어.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졸업 같은 반이었는데 대학교도 같은 곳  
으로 와서,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 우리  
만나서 평범한 것들만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단지  
내겐 너라는 소중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간은 고등학교 때  
만든 추억을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이, 몸이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슨 말을 해도  
결론은 이것뿐이야.  
내 소중한 친구로  
있어 줘서, 앞으로  
도 그럴 친구여서  
정말 고맙다. 우리  
오랜 세월을 지나면  
서도 정말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로 남  
자! 친구야, 고맙고  
사랑한다!



▲ 왼쪽이 받는 이, 오른쪽이 보내는 이다.

From. 윤봉춘  
(사회·정의 12)

### 글로벌캠퍼스에서 온 편지

To. 양상모(인문·언어인지 10)

상모 오빠! 저 주영이  
예요. 벌써 제가 이 학교  
에 들어온 지 한 학기 반  
이 지났네요. 처음에 수  
업부터 시작해서 학교  
돌아가는 상황까지 밤늦  
게까지 물어보면서 되게  
귀찮게 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자연스  
럽게 알게 되는 건데  
괜히 죄송해요. 술 때  
문에 오빠랑 장난으로 마니포 마니포 그랬었는데, 이제  
는 정말 오빠가 마니포인 것 마냥 많이 조언을 구하게  
되고 힘드네요! 힘들 때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오빠  
가 먼저 특 보내주셔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실 때  
다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도 오빠 덕분에 항상 잘 보  
여야 하면서 열심히 지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  
요. 정말 감사하던 말 밖에 드릴 말이 없어요! 열심히  
지내시는 오빠 모습 본받고 싶어요. 허허. 앞으로도 많  
이 챙겨주시고 항상 감사하던 말 전하고 싶어요. ^0^



▲ 받는 이 양상모군.

From.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 사설

### 시대의 변화와 본분교 통합

우리학교 본분교 통합이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 지난해 9월 14일, 본  
지 942호 사설에서는 본분교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대학 지형의  
변화'를 들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지방 소재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론사와 해외 평가기관에서 매년 내놓는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대  
학의 △외부 지원금 유지 △우수 신입생 모집 △졸업생 취업률 등이 영향을 받는  
다. 요즘의 대학은 냉엄한 생존경쟁에 내몰렸다.

그 동안 서울배움터 일부 학생들은 본분교 통합이 학교 전체의 이미지 하락을  
가져와 서울배움터에 우수 학생이 지원을 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울과 글로  
벌 양 캠퍼스 입학 성적이 동반 하락할 것이라 주장하며 통합에 반대해왔다. 하지  
만 속내는 달랐다. 고등학교 시절, 글로벌캠퍼스가 아니라 서울캠퍼스에  
들어올 만큼 학업성적이 좋았는데, 글로벌캠퍼스와 '똑같은 학교'가 된다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서울캠퍼스에 들어온 학생은 서울캠퍼스를 졸업하고,  
글로벌캠퍼스에 들어온 학생은 글로벌캠퍼스를 졸업하면 된다는 주장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시대의 변화'를 외면했다는 점이다. 본분교 통합은 특  
정 학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단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혹  
독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본분교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 발전에 필요했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본분  
교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른 불편함을 압도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우리학교에 더 이상 '분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학교에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두 개의 특성화 캠퍼스가 존재할 뿐이다. 통합의 결과 글  
로벌캠퍼스에도 서울캠퍼스 못지않은 우수 신입생이 몰려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졸업생 취업의 질이 향상되고, 학교 이미지가 상승함으로써 양 캠퍼스 입학 성적  
이 동반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본분교 통합을 통해 우리학교는 국  
내 제일의 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는 국내 제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계획을 세울 때다.

###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보수해야

지난해 9월 본지는 942호에 '본분교 통합의 현주소를 묻다'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다. 당시 우리학교 기획조정처는 한달 안으로 교과부 심의 위원회에 본분교  
통합할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대한 중북학과들의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학생들의 입장 또한 비슷했다. 양배움터 학생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24명에 해당하는 42.23%가 본분교 통합에 대해 모  
른다고 답했다.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이번달 2일, 교과부가 우리학교의 본분교 통합을 승  
인했다. 그동안 양배움터의 중북학과들은 끊임없이 학교와의 소통을 거쳤으며 절  
차상의 문제없이 커리큘럼과 과 이름이 변경됐다. 그러나 학생들은 한발 늦게 본  
분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이번 955호 2면의 기사에 나타나듯, 양배  
움터 총학생회는 본분교 통합이 승인된 이후에야 이 사안에 대한 비상총회를 열  
거나 대자보를 붙이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소통에 나섰다. 지난 1년  
동안 공론을 만들고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그 결  
과는 학생보다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번 본분교 통합으로 나타났다. 본분  
교 통합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못했고, 이 같은 사실은 우리학  
교 생활정보 포털사이트 홈스라이프 등에서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954호 사설에서 가천대학교의 학생 주도적 음주문화개선 캠페인  
을 언급했다. 그로부터 이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학교에서는 학생이 주도적으  
로 움직이고 학교가 호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본분교 통합은 이뤄  
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본분교가 통합된 우리학교를 학생이 어떻게 주도적  
으로 이끌어갈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이제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보수해야  
한다.

##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 독자기고

동문의 소리(9매) / 지남호를 말하다(7매) / 비둘기  
칠판(3매)의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 ■ 학보우체국

교환학생, 군대 간 친구 등 외대학보를 받기 힘든  
이들에게 학보를 보내드립니다.

### 소정의 선물

원고료 - 외대생 5,000원 / 매  
교직원, 동문 10,000원 / 매  
(1매 = 200자 원고지)

■ 증정품 - 매호 추첨을 통해 텀블러를 드립니다.

### ■ 십자말풀이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or www.oedaehagbo.com  
연락처 ·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외대학보 · 서울 국제학사 401호 · 글로벌 학생회관 212호  
편집장 강유나(영어·영어 11) 84yoonah@hufs.ac.kr

## 십자말풀이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① ①									
②		②							⑥
		③							
④ ③			④						⑦
					⑤				
					⑥				
	⑤								

### 가로열쇠

- ① 세균에 기생하여 식균(食菌) 현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총칭으로서, 단순히 파지라고도 한다 (9면 참조)
- ②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동대문역 사이에 있다
- ③ ○○○ (2면 답) 2번 줄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공원
- ④ 남편이 타인에게 아내의 부모를 일컫는 말
- ⑤ 제2회 생협 요리경연대회에서 1등한 요리의 이름 (3면 참조)
- ⑥ ○○○○○○ (1면 답) 다양성 은행 구축에 힘쓰고 있는 우리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과 교수 (9면 참조)
- ⑦ KBS 개그콘서트 '희극여배우들'에 출연 중인 희극 여배우. 유행어로는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시다!"가 있다

### 세로열쇠

- ① 이번 해 8월 새누리당의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여성정치인 (2면 참조)
- ②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액은
- ③ KBS 클래식FM '000의 가정음악'의 진행자 (12면 참조)
- ④ 여성의 성을 주제로 다루는 연극. '버자이너 0000' (8면 참조)
- ⑤ 주로 학습 및 기억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한의학상의 처방이다
- ⑥ 우리학교의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을 추진자는 취지로 서울배움터 도서관 앞에 세워진 동판 (4면 참조)

■ 십자말 풀이 정답을 11월 22일(목) 까지 이름, 연락처, 학보사에 하고 싶은 말과 함께 학보사로 가져오시면 추첨을 통해 각 배움터당 3분씩 총 6분씩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지남호 십자말풀이 당첨자

### 서울배움터

김성윤(동양어·몽골어 11)

배요한(영어·영통 12)

### 글로벌캠퍼스

정홍진(통번역·중국어 12)

김한울(동유럽·세크어 11)

##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강유나 부장 문나운 우보연 홍규원

정기자 권수정 김경보 김계선 김정원 박준서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윤 홍진아

조교 이현주 정진경

제작 (주)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 Eureka in Музыка!

(유레카 인 무지카 : 음악 속에서 답을 알아내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꿈을 좇는 여행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가정음악’의 장일범입니다” 아침 아홉시 라디오를 켜면 Secret Garden의 ‘Divertimento’와 함께 편안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우리학교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후 올해로 6년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일범(러시아어과 87) 선배가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러시아로 유학을 다녀온 후 활발한 음악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클래식을 전해주고 있는 음악평론가 장일범. 학창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해 음악인으로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말하는 그의 삶을 들여보자. 편집자주

**Q. 안녕하세요 선배님. 먼저 후배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음악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악평론가란 사람들에게 좋은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강연이나 해설을 통해 청중들에게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Q. 우리학교는 음악과 관련된 학과가 없어서 학생들이 이와 관련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은 우리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음악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A. 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워크맨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도 워크맨을 통해 음악을 자주 들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자습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워크맨으로 팝송을 못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워크맨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공부할 때도 음악을 꼭 듣고 싶었던 저는 그런 선생님들의 방침 때문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클래식음악을 많이 듣게 됐죠. 그러면서 클래식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도 음악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제 스스로가 노래하는 것이 좋았고 음악선생님들도 잘한다고 계속 칭찬해주셨죠. 그래서 성악을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결국 다른 학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택한 학과가 러시아어과인데, 당시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언어이고 러시아의 문화와 예술이 궁금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Q. 선배님이 우리학교에 입학하신 뒤 동아리 ‘목요음악반’에서 하신 활동들이 현재 음악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신 말씀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요음악반’이 선배님의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했나요?**

A. 그때의 활동들이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요음악반’에서는 많은 클래식음악을 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목요음악반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에 다 같이 모여서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해 서로 설명하고 토론했거든요. 그 활동으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된 셈이죠. 지금은 목요음악반이 감상만 하는 동아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의 목요음악반은 합창도 하고 노래도 하는 등 학교 안의 음대역할을 맡은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고, 그런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악과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었던 열정을 목요음악반에서의 활동으로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대에 가지 않고 우리학교 목요음악반에서 활동을 한 게 행운이라고까지 느껴져요.

**Q.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활동을 꾸준히 하셨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A.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문예진흥원의 극작평론반에 들어가서 연극, 평론, 연기 등 예술에 대해 계속 공부했었어요. 제 안에 있는 다른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12월 어느 날에 러시아 오케스트라가 내 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러시아 음악을 좋아했던 저는 당연히 보러갔죠. 그런데 로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몇 명 나와 있었어요. 당시 러시아어를 해보고 싶었던 저는 단원들과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일을 통해 단원 중 한 분과 친분을 쌓게 됐어요. 이를 계기로 러시아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성악테스트를 받을 기회가 생겼고, 그 때 성악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교수님의 말을 듣게 됐어요. 그 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솔직히 러시아로 다시 가서 성악을 배우고 싶었지만 사정상 계속 한국에 남아있게 됐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 월간 ‘객석’의 음악 전문기자로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취재를 할 때마다 아쉬움을 느꼈어요. ‘내가 저 무대에 서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성악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기자생활을 그만 두고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됐죠.

**Q. 선배님이 러시아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우리나라와는 문화도 다르고 음악을 배우는 방식도 이전과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나요?**

A. 유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어요. 러시아에 가서 처음 성악을 배울 때 제가 지금까지 쓰던 창법과 전문적으로 배우는 성악 창법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당시 러시아 상황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서 정말 힘들었죠. 게다가 한국에 IMF사태가 발생하면서 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던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어요. 그래서 10년을 계획하고 러시아에 유학을 갔지만 3년 만에 돌아왔죠. 하지만 힘든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의 생활 덕분에

어느 곳에 가서 고생해도 견딜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Q.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뒤, 어떤 음악활동을 시작하며 꿈을 펼치셨나요?**

A. 사실 유학을 가기 전 월간 ‘객석’에서 음악 전문기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을 때 KBS FM에서 패널로도 활동했었어요. 그 덕에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KBS FM에서 다시 패널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패널 활동과 함께 아트선재센터에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라는 공연을 열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당시에 전석매진은 물론이고 이미 관람했는데도 다시 보러 오는 관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한곳에서 시작한 공연이 다른 곳에서도 섭외가 들어와 결국 9년 동안 계속 열게 됐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KBS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클래식 방송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출연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 날 KBS FM에서 정식으로 프로그램 진행자를 해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장일범의 음악풍경’, ‘장일범의 생생클래식’ 같은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맡다가 아침 9시부터 2시간으로 진행되는 ‘장일범의 가정음악’을 맡게 되서 올해로 6년 차가 됐어요. 이 외 대학교 출강, 콘서트 기획도 하며 하루 종일 음악과 살고 있습니다.

**Q.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 활동은 무엇인가요?**

A. 모든 활동이 기억에 남죠. 여태까지 해온 활동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는 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명예교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 활동은 예술종사자 중 학생들에게 귀감이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폐교 직전의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말해요. 클래식이 생소해서인지 재미없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딴 짓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클래식 음악에 감명을 받는 아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배님은 정말 많은 것을 이룬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아직 이루고 싶은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욱 잘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를 한국에서만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 외국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더욱 많은 나라에서 해보고 싶는데 특히 중국이 끌려요. 중국이 지금 클래식음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클래식을 재미있게 해설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중국에 가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와 같은 재미있는 클래식 강연을 열어 중국인들도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후배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계속 몰두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저도 음악 분야를 좋아해서 계속 공부를 했더니 유학을 갈 기회도 얻었고 결국 현재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요. 또한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보다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에 충실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 좌우명이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my life’, 즉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다’예요. 이 말처럼 후배들이 항상 낙천적인 마음으로 ‘언젠간 이를거야’라는 생각보다 ‘지금 조금씩 이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